**히브리서**

**저자:** 미상. 종교 개혁 이전에는 바울을 저자로 생각해왔으나, 문체와 강조점이 바울의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아서 본서의 저자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이며 초대 교회가 인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는 점 외에는 알 수 없다.

**기록 연대:**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 (주후 60-70년 사이). 성전과 제사장 사역을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던 시기로 본다 (5:1-3, 7:23,27; 8:3-5; 9:6-9,13,25; 10:1,3-4,8,11; 13:10-11).

**독자:**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 회심자들

**주제**: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고 중보하는 **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충족성**.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최종적 계시이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, 천사, 모세 및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다. 그러므로 그가 이루신 이런 큰 구원을 무시하고 (2:3)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(12:10,14)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(10:31). 저자는 다섯 번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(2:1-4; 3:7-4:13; 6:4-8; 10:26-31; 12:25-29).

**문학 형태**: 편지라기 보다는 설교나 에세이 같다. 저자를 밝히거나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고 교훈으로 시작한다. 끝에 인사가 나오지만 (13:22-25).

**개요**

1. 서언: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우월성 (1:1-4)

2. 그리스도의 우월성 (1:5-7:28)

가. 천사보다 우월하심 (1:5-2:18)

나. 모세보다 우월하심 (3:1-4:13)

다.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심 (4:14-7:28)

3.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 사역 (8:1-10:18)

가. 새 성소와 새 언약 (8장)

나. 옛 성소 (9:1-10)

다. 더 나은 제사 (9:11-10:18)

4. 그리스도를 신실함과 인내로 따르라 (10:19-12:29)

가.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 (10:19-25)

나. 지속적인 죄에 대한 경고 (10:26-31)

다.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 (10:32-12:3)

라. 연단에 대한 인내를 격려함 (12:4-13)

마.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(12:14-17)

바. 상급과 경고 (12:18-29)

5. 결언 (13장)

가.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 교훈(13:1-17)

나. 끝맺는 말 (13:18-25